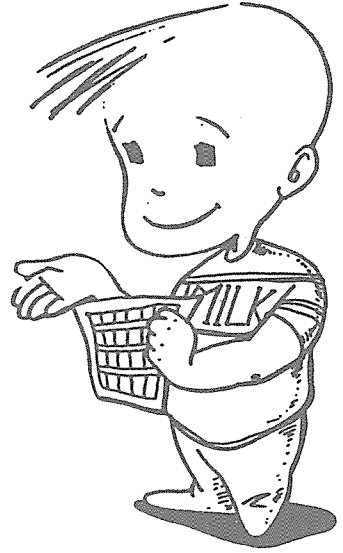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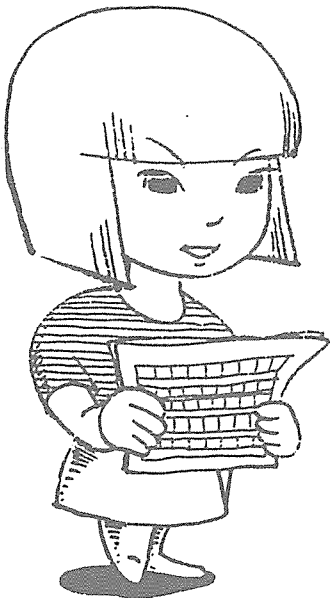
제10회 어린이 우유 장학금 글짓기 대회 입상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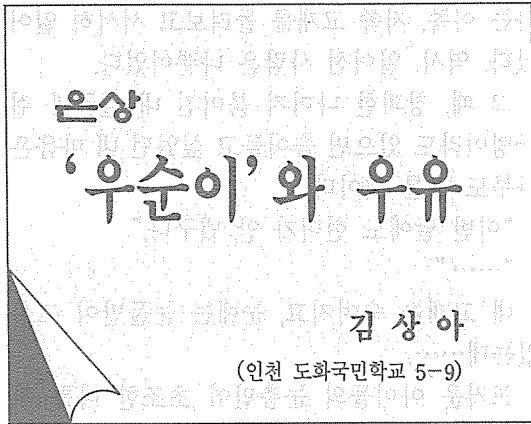


한국유기공협회에서는 우유소비촉진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과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의 글솜씨 향상을 위해 지난 85년부터 매년 “어린이 우유장학금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열번째인 94년도에는 전국에서 총2천4명이 응모, 새싹회(회장 윤석중)에 심사를 의뢰하여 최우수 1명, 금상 2명, 은상 5명, 동상 20명, 장려 50명을 엄선하여 상장과 장학금(장려상은 부상)을 수여했다.

본지는 동상이상 28편을 4회에 나누어 게재한다. 지난호에 이어 이번호에는 은상 1편, 동상 6편을 실는다.





여름방학 때의 일이다.

엄마와 오빠, 나는 아빠가 계신 시골로 갔다. 농사를 지으시는 큰집에는 소가 참 많다.

열 마리쯤 되는데 세 마리가 송아지를 낳았다. 두 어미소는 젖을 잘 주는데 한 마리는 아기에게 조금도 젖을 주지 않았다. 할 수없이 우리오빠가 아기였을 때처럼 우유를 먹이기로 했다.

방학동안 우리집을 다시 짓는 공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 식구와 큰아버지, 큰엄마가 모두 바빴다. 각자 맡아서 할 일을 나누었는데 내가 할 일은 설것이 하기와 송아지 우유를 먹이는 일이 됐다. 나는 무엇보다도 우유 먹이는 시간이 제일 즐거웠다.

제일 먼저 송아지 이름을 지어 주었다. 「우순이」라는 이름이 정말 어울리는 것 같았다. 끼니때마다 우유를 데우고 젖병 소독을 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점심을 먹이는 시간은 조금 싫었다. 그렇지만 어느 사이 우순이는 내 모습이나 목소리가 들리기만 하면 문쪽으로 달려나왔다.

어느 날 나는 낮잠을 자다가 우유를 먹이는 시간을 잊어 버렸다. 늦게 먹였더니 좀 뜨거운 것을 허겁지겁 먹다가 우순이는 입 안을 몽땅 데웠다.

우순이는 그 다음날까지 못 먹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옆에 있는 다른 어미의 째를 먹다가 혼이 나기도 했다. 그래도 우순이 엄마는 젖을 주지 않았다. 나는 너무 미워서 한 때 때려 주었다.

우유를 적당히 따뜻하게 해서 「우순이」를 쓰다듬어 주면서 먹이니까 다시 잘 먹었다.

우리 집에는 <바우>라는 콜리종 강아지가 있는데 「우순이」보다도 우유를 더 좋아 했다. 우순이가 우유를 먹을 때 마다 달라고 킁킁거렸고 주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나는 큰엄마 몰래 <바우>에게도 「우순이」 우유를 먹였다. 우순이와 바우는 서로 자기에게 우유를 더 달라고 나한테 애교를 부렸다. 우순이는 조그만 코를 벌렁거렸고, 바우는 빨리 자기 입에다 대 달라고 내바지를 물어 뜯었다.

우유 먹이는 시간은 정말 즐거웠다. 방학이 다 끝나갈 때쯤 우순이

는 살이 통통하게 쪼다. 바우도 입이 몇 센치는 더 길어졌고, 키도 커졌다.

한 달동안 우순이는 우유를 굉장히 많이 먹었다. 커다란 우유가 12개 들어있는 상자를 4개나 비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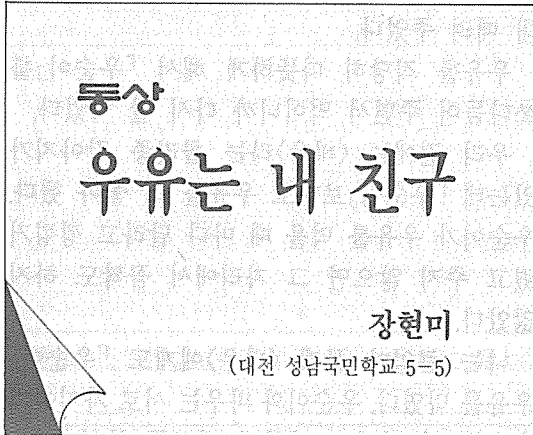
나는 흰 우유를 참 싫어 했었다. 비린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맛이 없어서 절대로 먹지 않았다. 그렇지만 우순이에게 우유를 먹이는 동안 우유도 좋은 향기가 있다는 걸 알았다. 고소한 맛도 알았다.

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시작됐다. 학교에서 우유먹을 사람은 신청을 하라고 해서 나도 신청을 했다.

엄마가 웬일이냐? 하시며 기뻐 하셨다.

나는 이제 흰 우유를 아주 잘 마신다. 우유를 마실 때 마다 「우순이」와 바우가 눈 앞에 아른 거린다. 정말 보고 싶다.

아빠는 몇 배 더 보고 싶다. 울음이 나오려는
걸 우유를 삼키는 척하며 꿀꺽 삼켰다.
눈을 감고 벌걱벌걱 삼켰다.



우리집은 참으로 불행한 집인가 보다. 그건
우리 부모님이 말하지도, 듣지도 못하시기 때
문에 이 사실을 알고있는 나의 친구들은 나를
친한 친구로 사귀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유만은 나를 버릴수 없는 나의 진
정한 친구이다. 이런 우리집은 좀 가난하게 버
터나가고 있다. 그래서인지 생활보호대상자 혜
택을 받고있다.

엄마께서 우리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우유
급식비를 달라고 하면 지금은 돈이 없으니, 다
음달에 주신다는 핑계로 나는 이제까지 우유를
먹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언제까지나 학교에서 창피만
당해야 했고, 우유 급식비를 내라는 선생님의
말씀이 언제나 싫게만 느껴졌다.

어느 날이었다.

“오늘이 우유 급식비 마감이다. 우유 급식비
별 사람 없니?”

모든 아이들이 나의 얼굴을 쳐다 보았다.

“그럼, 이번달에 우유 급식비 안 낸 사람 일
어서봐.”

나는 이쪽, 저쪽 고개를 돌려보고 서서히 일어
섰다. 역시, 일어난 사람은 나뿐이었다.

그 때, 창피한 나머지 붉어진 내 얼굴과 쥐
구멍이라도 있으면 숨어두고 싶었던 내 마음은
아무도 모를 것이다.

“이번 달에도 현미가 안 냈구나.”

“.....”

내 고개는 숙여지고, 눈에는 눈물만이 고여
있는데.....

뜨거운 아이들의 눈총만이 초조한 나를 지
켜보고 있을 뿐 이었다.

“현미야, 이리 나와봐라.”

선생님께서는 나를 부르셨다.

“현미야, 너희집은 생활보호 대상자이고, 집
안 형편도 만만치 않으니, 이번달 부터는 너에
게 우유를 무료로 준다고 하니, 이번달 부터는
아무 걱정말고, 우유를 먹도록 해라.”

이것이, 우유와 나의 첫 만남이었다. 처음 학
교에서 우유를 받아 먹을 때에는 심한 구토를
하여, 학교에서 나누어 주는 우유를 집에 가져
와 부모님을 드리기도 했고, 때로는 우유 먹는
습관을 기르기 위하여 설탕을 섞어 우유를 달
게하여 먹기도 했다.

그래서 처음 우유를 먹을 때에는 우유가 마치
나의 원수가 되기도 했던 것이다.

이렇게 우유먹는 습관을 애써서 기르기 시
작하여 한달쯤 지나자, 우유는 마치 내 곁에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것으로 남았다.

언제나 외할머니댁에 가면 할머니께서는, 이
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무슨 애가 그렇게 약하니? 한약 좀
다려 먹어야겠다.”라고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
하실 때에는 금방이라도 쓴 약을 먹어야 할 것
처럼 덜컥 겁이 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은
빼죽이라고 놀림을 받아오던 나도, 요즈음에

외갓집에 가면,

“아이구, 우리 현미왔구나. 진작 이러면 얼마나 좋아. 살이 통통 해진게 귀엽게도 생겼네.” 하고 할머니께 귀여움을 받는다.

이 정도로 우유는 나에게 둘도 없는 소중한 친구가 되었고, 내 곁에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보물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 선생님의 말씀이 떠오른다.

“우유는 어린이, 특히 성장하는 어린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유는 하루에 500ml정도 먹는 것이 좋다.”하시던 말씀.

지금 우리반에 우유를 먹지 않는 친구가 있

“엄마, 난 흰우유가 정말 싫어요. 먹기 싫어요!”

“지영아, 우유가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 줄 아니?”

“나는 몸에 아무리 좋아도 싫어요.” 학교에서 우리들에게 우유 급식을 하는데 엄마는 자꾸 싫은 우유를 먹으라고 하시는 것이다.

어쩔 수없이 우유 급식비를 타서 학교에 갔다. 우유를 신청했지만 먹기가 싫었다.

“그래. 내가 왜 그것을 생각 못했을까!” 문방구에서 우유와 불량 식품과 바꿔먹기도 하고, 몰래 버리기도 했다. 또 남겨서 우유가 상하기도 했다.

“지영아! 우유 남겨오지 말고 학교에서 다 먹고와. 자꾸 남겨오면 큰 코 다칠 수 있다.”

나는 엄마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버렸다.

“딩동딩동.”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는 점심시간이다.

‘무슨 반찬 싸 주셨을까? 햄일까? 소시지일까?’

부푼 가슴으로 도시락 뚜껑을 열어보니 햄도 소시지도 아닌 편지가 들어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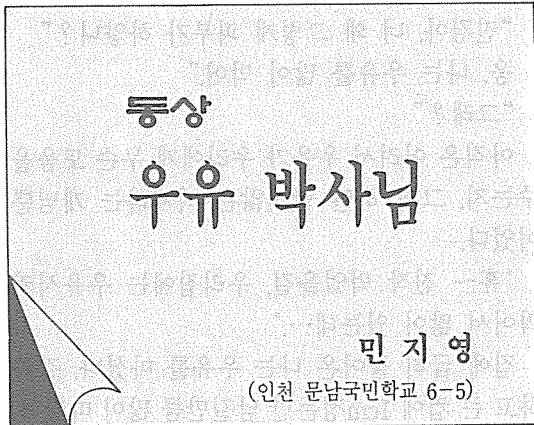
‘지영아! 지금쯤 너의 책상 속에는 우유가 들어있겠지. 점심 맛있게 먹기 바란다.’

엄마의 편지를 보자마자 눈 앞이 아찔했다. 배는 고프고 가진 것은 우유밖에 없었다.

“꿀꺽꿀꺽.” 평상시에는 맛이 없던 우유가 고소하고 담백하게 느껴졌다.

‘엄마가 우유는 꼭꼭 씹어서 먹으면 더욱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하셨지!’

엄마의 말씀대로 우유를 꼭꼭 씹어먹었다. 엄마의 사랑이 우유처럼 부드러운 향기로 내 가슴에 느껴졌다. 배고픔도 없어졌고 맛없던



다면 우유를 권해 주어야지!

내가 느낀 점을 말해 주면서...

“지영아! 뭐 먹을래?”

“나는 밀키스 먹을건데.”

“나는 흰우유!”

“으휴~ 흰우유를 먹냐. 맛도 없는데...”

“뭐니뭐니해도 난 흰우유가 좋아.”

친구 회정이와 길을 걷다가 너무 목이 말랄 슈퍼에 들렀다. 회정이는 시원한 탄산 음료를 먹겠다고 했다. 내가 흰우유를 먹겠다고 한 것은 지난 일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우유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엄마. 엄마! 오늘 점심 최고였어요.

맛있는 점심 먹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
다.”

그 후 며칠이 지났다.

“오늘은 40~50대 주부들에게 많일 걸리는
‘골다골증’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골다골증은 커피등을 많이 마셔서 뼈에 구
멍이 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병은 뼈를 튼튼
히하는 우유를 많이 먹으면 예방할 수 있습니
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하얀 물같은 우유가 그렇게
큰 병을 예방할 수 있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현
할 수가 없다.

“희정아. 자고로 우유는 칼슘이 많아서 뼈와
이를 튼튼히 해 준다.

또 뼈가 약해지는 ‘골다골증’이라는 무서운
병도 예방할 수 있다.”

“우와~ 우리 지영이 우유 박사 다 되었네.
언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어. 대단한데.”

“기본이지. 뭐~.

“가지지요. 우유 박사님.”

하셨을 정도이니까...

이 나온다.

그때 ‘진경’이라는 피부가 무척 하얀 친구와
가까이 지냈다. 늘 진경이의 흰피부를 부러워
했다. 거기에 티하나 없는 얼굴 꼭 깨물어 주고
싶은 아기같은 피부였다. 하느님이 사람을 만
들었을때 흙으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진경이의
피부는 흙이 아닌 갓짜낸 우유로 빚은 것만 같
았다.

그래서 진경이와 놀때도 내 피부에 신경이
쓰였다. 술래잡기를 하루종일 해도 햇볕에 피
부가 그을리지않는 진경이. 그런데 난 이게 뭐
야? 햇볕에 그을려 거므스름한 내피부.

진경이의 피부와 너무나 차이가 났다. 어느날
난 진경이에게 물어보았다.

“진경아, 너 왜 그렇게 피부가 하얗니?”

응. 나는 우유를 많이 먹어.”

“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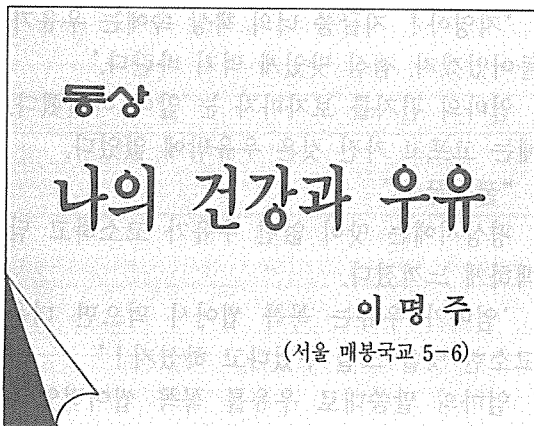
아직은 어려서 우유가 우리에게 무슨 도움을
주는지. 그저 하얀 달지않은 액체라는 개념뿐
이었다.

‘휴~ 진짜 먹었을걸, 우리집에는 우유시켜
먹어서 많이 있는데...’

집에 급히 들어온 나는 우유를 마셨다. 길쭉
하고 큰 컵에 1cm정돈만 남길만큼 많이 따랐다.
‘우유도 하얗고 진경이 피부도 하얗지. 그러
니까 내가 마시면 분명 내피부도 하얗게 변하
겠지?’

영똥하고도 순수한 생각을 갖고 난 뒤부터...
그렇다. 이때부터 우유를 습관처럼 마시게 되
었던 것이다. 그러니 내가 우유를 좋아하기 시
작한 기반이라고도 할 수있다. 그 전에 우유를
마실적에는

“뭐이래? 달지않고 희기만 하잖아?”하며
마시지 않았다. 그러나 갑자기 우유를 마시는
나를 보시고 엄마도 흐뭇해 하신 기억이 난다.
달고 맛있는 음식만 찾던 내가 건강식품우유를



몇년 전의 일이다. 지금 생각하면 절로 웃음

먹게 되다니 우유에 단맛이 있나? 하고 의심
그렇게 한 몇주일 동안은 우유를 마셨다. 습
관처럼...

이제는 되겠지, 이만하면 내일에는 내 피부도
하얗겠지?.

아무튼 그 다음날 아침이었다. 나는 안방 큰
화장대 앞에 쭈그리고 앉았다.

‘자 하, 둘, 셋하면 일어나는 거야. 그럼 자
하나, 둘, 셋 짜자잔’ 하며 거울에 선 나는 그만
울상을 짓고말았다.

“뭐야? 이게? 그대로잖아?”

그동안 우유먹은 양을 생각하자 으이구 화나.
진경이가 거짓말 했잖아? 우연인지 그날 롤
러스케이트를 조심조심 타고있는 진경이를 보
았다.

난 진경이 곁에 가서 조용히 물었다.

“진경아 너 왜 그렇게 피부가 하얗냐고? 네
말대로 우유먹어도 이봐 그대로 아냐?”

“모르겠어. 난 그저 우유를 먹었을 뿐인걸?”

‘핑 거짓말’ 화가난 나는 집으로 왔다. 엄마
께 여쭙보았더니 엄마는

“명주야, 그건 좀 이상하지 않니?”

물론 우유를 먹으면 피부도 좋아지지만 무
엇보다도 건강해지고 키도 쑥쑥 잘 크지”하고
자상하게 설명해 주셨다.

휴 다행이다. 그럼 그동안 헛수고 한 것은
아니였구나. 그런 일이 있고부터 우유를 즐겨
마시고 있다. 피부가 하얗게 변하는 것보다 내
건강을 위해 한잔, 두잔 꿀꺽꿀꺽.

지금은 키도 부쩍 컸다. 건강한 편이고...

한편으로는 진경이에게도 고마움을 느낀다.

우유를 먹게 되기까지는 진경이의 피부를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었다. 어릴적
순수하면서도 엉뚱했던 아름다운 순간순간 하
나가 기억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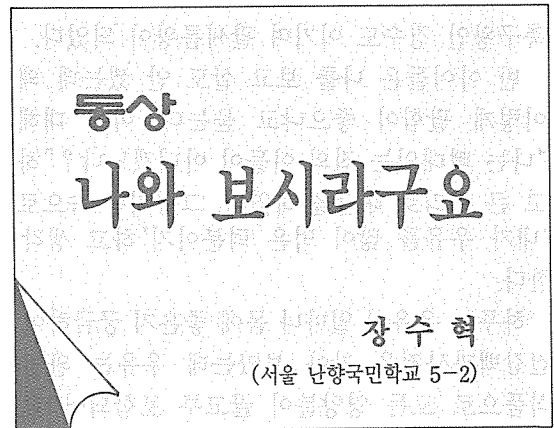
우유를 마시고 진경이 피부를 원하던 그때의

나의 바람.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고 키도 크고 우유에
대한 나의 생각을 이렇게 맘껏 표현할 수 있었
던 것은 다 나의 옛 추억 덕분이었다. 그리고
달콤한 사탕과 초콜릿 맛난 빵 단 음료수, 과
자는 우유의 여분의 일도 못미칠 것이다.

이렇게 하얀 액체에 모든 것이 담겨있겠지?
추억과 우정, 부러움, 엉뚱함, 순수함, 건강 이
모든 것은 우유, 언뜻보면 하얗기만 하고 달지
않는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마시면
하얀 액체가 아닌 아주 푸른색깔에다 나의 건
강을 지켜주는 고마운 존재라는 것을 알겠지?

우유야, 고마워! 나의 건강을 언제까지나 지
켜줘.



우유와 나는 굉장히 인연이 깊다.

나는 어머니의 젖이 적어 태어날부터 젖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대신 우유를 마시고 자랐
다.

나의 옆집에는 어렸을때부터의 친구인 명성
이가 살고 있다. 우리집 사정을 명성이는 잘
알고 있다. 하루는 명성이가 수혁이는 엄마 젖
보다 우유를 더많이 먹었기 때문에 “수혁이 엄
마는 소래요.”하고 놀린 적이 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한동안 시무룩해하며 친구들과도 어울리지도 않았다.

어머니께서 나의 모습을 보시고 걱정이 되셨는지 너 어디 아프냐고 물으셨다. 그러자 어머니께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왜 어머니께서는 나에게 젖을 안 주셔서 놀림을 받게 합니까”하고 투정을 하였다. 어머니께서는,

“수혁아, 이 엄마는 보다시피 이렇게 허약하잖니? 젖을 못먹여서 미안하지만 그래도 너는 우유를 먹고 이렇게 튼튼하지 않니?” 하시며 내 손을 꼭 잡으셨다.

우리 반 친구들은 무엇인가 시합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팔씨름대회를 열기로 했다.

나는 나보다 몸집이 크고 키가 훨씬 큰 경현이와 정훈이, 여운이, 원선이를 이기고 결승에서 축구왕인 경수도 이기며 팔씨름왕이 되었다.

반 아이들은 나를 보고 살도 안 찼는데 왜 이렇게 팔힘이 좋냐고 묻는다. 이에 대해 “나는 뼈대있는 집의 아들이 아니겠느냐?”하고 큰 소리로 대답을 하였다. 그렇지만 속으로 ‘내가 우유를 많이 먹은 덕분이지’하고 생각한다.

하루는 우유가 얼마나 몸에 좋은지 궁금하여 건강백과사전을 찾아 보았는데 우유는 완전식품으로 모든 영양분이 골고루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장 좋은 식품이라고 한다.

특히 우유는 칼슘이 많이 들어있어 우리들이 성장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식품임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우유에 대한 잊지 못할 추억이 있다. 우리 집은 1000ml의 우유를 받아 먹는다.

나는 운동을 좋아하며 운동을 많이 하는데 운동을 하고 나면 땀이 많이 흘러 대부분 그 우유를 내가 먹곤 했다.

여름에는 그 우유마저 모자라서 동생과 다 투기도 한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아예 여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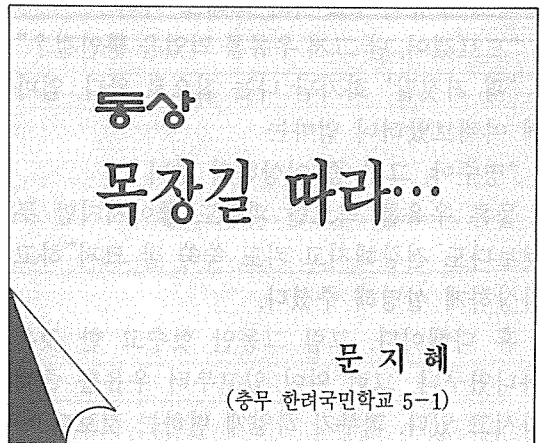
만되면 전지분유를 준비해 놓으셨다가 부족할 때 물에 타 주신다.

이와 같이 좋아하던 우유가 한 때 싫어한 적이 있었다.

그것은 냉장고 속 깊숙히 넣어 놓은 우유를 마셔 버렸다가 구토와 설사를 하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10일이나 지난 상한 우유였다. 그때 한동안 우유가 보기 싫었으나 다시 좋아하게 된 경험도 있다.

나는 건강하고 운동도 잘한다. 또 공부도 열심히 한다.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은 건강하기 때문이 아닐까? 무엇보다도 나의 건강의 비결은 우유를 좋아한다는 사실이다.

나보다 우유를 더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있다면 나와 보시라구요! 또 나보다 건강한 사람도 나와 보시라구요!



꽃 냄새가 풍기는 봄날이었다.

외삼촌이 감기에 걸려 매우 아프셨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주말에 가서 외삼촌 일을 돕기로 했다.

기차를 타고, 4시간쯤 갔을 때이다. 기차들의 노래소리와 저넓은 들에서는 꽃과 나비들이 날 반기듯 너홀너홀 춤을 추었다. 어느듯 바다냄

새가 풍겼다. 15분쯤 이렇게 달리자 목적지에 다왔다.

그 곳은 높은 산에 풀들이 무럭무럭 자라있고 그 주위에는 푸른 물결이 출렁이는 바다가 보이는 멋진 곳이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도착한 곳은 삼촌의 목장이었다.

평소 TV에서만 보던 젖소를 보니 정말 신기하였다.

하루가 지났다.

엄마께서는 아침밥을 준비하시고 아빠와 나 삼촌은 목장에 갔다. 목장안에 126마리쯤의 젖소가 있었으며 110마리쯤의 새끼젖소도 있었다.

처음 시작한 일은 우유짜기였다. 삼촌께서는 장난삼아

‘엄마 젖처럼 짜면 된다’고 하셨다.

그래서 나도 장난삼아

‘입으로 빨아야지’

하며 젖에 입을 대자 보고 계시던 아빠와 삼촌께서 껄껄 웃으셨다.

이렇게 내가搾우유는 한동이에 가득담겼다. 그리고는 우유에 담긴 나뭇균을 빼기 위해 영양사 언니가 오셔서는 우유를 검사 하셨다.

그리고는 우유의 좋은 점과 우유에 담긴 좋은 영양소들을 잘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아침 밥을 먹고나서 내가搾 우유를 먹고나니 내정성이 담긴 우유를 맛있게 먹었다고 생각하니 참 기뻐다. 두번째로 간 곳은 젖소들이 먹을 영경귀를 캐로 갔다.

영경귀는 있는 가시에 손이 찢려 피가 나기도 했지만 젖소들이 맛있게 먹는다고 생각하니 아픈 손이 금방 다 나은 것같았다.

우리가 캔 영경귀를 트럭에 싣고 목장으로 돌아갔다. 젖소들에게 아침으로 영경귀를 줘와 함께 섞어 주었다. 다음에 간 곳은 새끼 젖소들에게 젖을 주는 곳이었다.

아기들이 먹는 젖병에 젖소에게서搾 우유를

넣어 새끼 젖소들에게 주웠더니 아주 잘 먹었다.

새끼 젖소들에게 우유를 주는데 얼마나 힘이 센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그리고서는 젖소들의 배설물을 치우러 갔다. 얼마나 냄새가 고약한지 코로 냄새를 맡을 수 없을 정도로 지독했다.

삼촌 말씀으로는 젖소의 배설물로 젖소들의 먹이를 기르고 있다고 하셨다.

한 마디로 말해서 젖소들의 먹이인 영경귀와 풀을 기른다고 하셨다. 그리고 점심때였다. 젖소들은 우리들이 캔 영경귀와 짚을 먹고 삼촌과 나 아빠는 나무그늘 아래서 어머니께서 싸오신 점심을 맛있게 먹었다.

나는 이 시간을 비롯해 우리가 시중에서 먹고 있는 우유는 우리 외삼촌과 같은 농장 사람들의 피와 땀이 섞여있는 좋은 영양소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고, 이 경험을 비롯해 자주 우유를 사먹고, 가끔 삼촌농장에 들러서 삼촌을 도와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또 내가 삼촌을 도울수 있는 일을 찾아 아빠와 함께 목장에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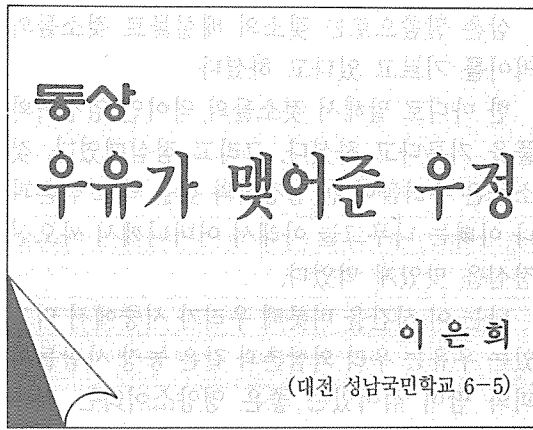
이번에 해야 할 일은 젖소들의 간식을 주기이다.

126마리의 젖소들을 몰고, 아빠, 나, 삼촌은 양지바른 들에 젖소떼를 풀어주고, 간식을 먹도록 하였다. 그리고 아빠, 나, 삼촌은 포근한 풀에 누워 아름다운 경치를 보았다. 하늘에는 갈매기들이 날아다니고 은빛 바닷물일 출렁이는 이곳을-

빨강계 노을이 붉게 물들었을때 우리 가족은 삼촌에게 인사를 드리고, 가려는데 삼촌께서는 우유를 병에 가득넣어 주셨다. 기차를 타고 오는 길에 나는 결심을 했다. 삼촌께서 주신 우유를 많이 먹고 잘 크고 씩씩하게 공부 잘하겠다고...

그리고 우유를 마실때면 이 추억을 떠올리곤 한다. 요즘 우리 가족은 우유를 아주 잘먹는다. 지난 봄에 결심한 것처럼 나는 우유를 많이 먹어서 튼튼하고 씩씩하며 공부 잘하는 여학생이 되었다.

우유를 잘 먹는 여학생으로...



“와! 우유급식 시간이다.”

쉬는 시간 종이 울리기가 무섭게 아이들은 우유를 하나씩 집어들었다. 그런데 교실 한 모퉁이에 앉아 눈을 훑치는 아이가 있었다. 며칠전부터 그래오던 아이라 그런지 눈길도 그 아이에게 쏠렸다.

“은희야, 받아라.”

하며 말썽장이 성민이가, 우유를 던졌다. 다행히 맞지않고, 내 손에 꼭 쥐어졌다. 어려서부터 우유라면 발버둥치며 먹기 싫어했던 것이라 그런지 먹기 싫은 마음이 들었다.

“난 우유가 정말 싫어.”

하는 나에게 선생님께서는

“은희야, 우유가 싫으니? 내가 잘 모르는구나! 우유를 먹으면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아니? 키도 부쩍 자라고... 참, 혜영아 네 우유급식비는 선생님이 냈으니, 내일부터는 꼭 먹도록 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모퉁이에 앉아있던 아이는,

“선생님 고맙습니다.”

하는 인사만 하고 자리에 앉았다. 수업이 끝난 후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어머니, 오늘은 우유를 먹었어요. 그런데 혜영이라는 아이는 우유를 먹지않았어요. 선생님께서 우유급식비를 내 주신다고 하셨구요.”

하고 말씀드리니 어머니께서는

“응, 옆집아이 말이구나! 그 아이네 집 형편이 어려워 우유급식을 해주지 못한다는구나!”

하고 말씀하셨다. 그제서야 난 모퉁이에 앉아있던 혜영이라는 아이가 우리 옆집에 산다는 것을 알았다. 그 아이 앞에서 우유를 싫어한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이튿날 아침, 학교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모여앉아 웅성웅성 났다. 난 내 짝 영미에게

“영미야, 무슨 일이니?”

하고 물어보자 영미는

“응, 어제 심한 열이나서 집에서 쉰대, 아마 학교도 나오지 않을 생각인가봐.”

하며 걱정스런 표정을 지었다.

우유급식시간, 선생님께서는

“혜영이와 집이 가까운 사람, 이 우유를 혜영이에게 가져다 주세요.”

하고 말씀하셨다. 난 얼른 일어나, 교탁 위에 놓여져 있는 우유를 집어들었다.

혜영이가 눈 앞에 아른거렸다. 어느 새, 난 혜영이를 몹시 걱정하게 되었다. 혜영이네 집에 들어서니, 혜영이 어머니께서 반갑게 맞아 주셨다.

“혜영이, 많이 아파요? 우유를 가지고 왔는데...”

하고 이야기하자, 혜영이 어머니께서는 어서 들어오라고 손짓하셨다. 아주머니께서 과일을

깎으시는 동안, 혜영이는

“네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하며 무척 놀랐다. 난 우유를 보여주며

“응, 이것을 가져다 주려고, 지금도 많이 아프니?”

하고 다정스레 물었다. 혜영이는 고개를 살래 살래 저으며, 내 손에서 우유를 받아 들었다. 혜영이는 나에게

“은희야. 네가 우리집에 찾아와 주어 정말 기뻐. 난 너와 친구가 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 이제 내 친구가 되어줄래?”

하며 빙그레 웃었다. 나는 혜영이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날 아침, 나는

“혜영아, 학교가자.”

하고 혜영이를 불렀다. 혜영이는 우유를 가지고 나오며

“은희야, 이것이 너와 나를 친구로 만들어 준 고마운 우유야.”

하며 나에게 주었다. 혜영이와 학교로 발걸음을 옮겨가며 우유를 두 손에 꼭 쥐었다. 혜영이도 우유도 이젠 내친구.

